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를 필요로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립의료원 515호에 입원하고 있는 말기환자 김씨는 아침마다 자신의 용변을 받아내고 침대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이침자씨(56·법명 보현경)를 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거듭거듭 한다. 김씨는 자신과 같은 환자들의 수발을 7년째 들고 있는 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원봉사자 이씨를 만나게 되면서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과 살아있음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어디 불편하신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식사도 많이 하시고요.”
이침자씨는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그것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진물이 배어나 살갓이 썩어 들어 가는 환자들을 어머니가 되어 수발을 든다. 그 뿐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각 층의 병실을 돌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 먹여주는 등 손발이 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법당에서 기도하는 1시간을 빼고나면 하루 6시간을 쉼없이 ‘보살’의 삶을 살아간다.
이씨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 씀씀이는 외로운 이웃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립의료원 법당 폐쇄를 막아냈고 법당 부처님 정안식(1월18일)을 가졌다. 또 육군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종교편향 시정을 위해 앞장섰다. 불교이 입문하고 10여년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이 못내 부끄러워 이웃을 돌보는 일에 나선 이침자씨의 또다른 실천행이었다.
새벽 4시면 부인을 찾아 함께 예불을 드리는 남편 강노식씨(61)와 두 딸은 그의 든든한 후원자다. 너나할 것 없이 입신을 얻어 주는 가족들 덕분에 오늘날 이씨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나선다.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불자된 도리와 자세를 그려내고 있는 이씨의 모습에서 환자들은 용기를 얻고,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낀다.
(도필선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조계종 <갈라서는가> 선학원

조계종, 재산환수·스님자격 정지등 결별수순
선학원도 대응책모색...“한뿌리 잊지말라” 여론

조계종과 선학원의 결별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소속 스님들에 대한 각종 규제, 선학원 설립시 출연된 조계종의 재산환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학원 정리 방침’을 세웠다. 조계종의 이같은 방침은 17일 교구본사주지 회의에 보고되며 공개됐다. 같은날 선학원은 재단이사회를 열고 96년 재단 내부규정 10조 2항에 신설했던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로써 조계종과 선학원이 96년 8월 27일 도출했던 합의사항은 사

실상 무산 됐으며 조계종과 선학원은 ‘결별국권’으로 치닫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8일 ‘선학원 본원장스님들에게 알립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종단과 선학원의 대화와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어 종단은 불가피하게 종헌준비를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선학원 소속 승려의 △각종 종무직 취임불가 △조계종의 승려 자격정지 △교구의회 제한 등 3가지 규제사항을 통보했다. 조계종은 또 성명에서 “만약 조계종 소속으로 남으려는 본원장 스님이 개별적으로 종단



△국민회의 연동회와 자민련불자회는 20일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가졌다.

“종교중립 지키는 정부”

숭차기대통령, 국민화합 기원법회서 약속

국민회의 연동회와 자민련불자회가 마련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가 20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렸다.
법회에는 백양사방장 서용스님과 김대중 차기대통령 등 교계와 정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김차기대통령은

조계종 종교편향 대책위 3월 발족

전불련 실천승가회 평불협 등 10개단체 참가

(가칭)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구성된다. 교계 10개 단체 실무자들은 18일 조계종포교원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3월중 대책위를 발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책위 활동목표를 △종교편향 예방과 홍보 △해결·편향사례 접수 △문제 해결과 방지대책 마련하는 한편

“해병대를 예수부대로 만들겠다”

전도봉 해병사령관 발언 ‘파문’

해병대 사령관의 ‘해병대를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열린 (가칭)종교편향대책위원회 준비를 위한 불교단체 실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교계단체 실무자는 “이명의 재보자로부터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이 16일 오후2시 해병2사단 교회 신축기공식에 참석, ‘해병대를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계 10개 단체 종교편향대책위 준비위와 조계종 포교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

국난극복과 미래자손을 위한 회향 디지털 대장경을 만듭시다

우리의 선조들은 외적의 침입을 맞아 구국의 일념으로 팔만대장경을 판각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하고 정보화사회에 맞추어 대장경을 전산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영광스런 사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적극 후원키로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국난극복의 뜻을 되새겨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업적을 온세상에 펼쳐지는 취지의 이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기간: 2월25일~12월 31일
◇참여방법: 위 기간 동안 전국 사찰순례 후원법회와 ‘후원인의 밤’ 등을 통한 후원인 모집
◇98년사업: 고려위드 및 고려프린트, 자동교정 프로그램 개발
◇참여문의: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전화 (02)797-0585 http://www.members.iworld.net/~hederein
◇주최: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은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진중선사의 오도현장이며 신라불교의 초창지인 선산 모래원·도리사, 용성스님 유품전이 열리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각사를 찾아 스님의 대각과 운동과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한문불경 번역과 찬불가 작곡 등 대중교화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현장에서 새겨보세요. 이날 대각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용성스님의 대표저서 <각해일품>를 법공양 합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래원 도리사 서울대각사
◇출발: 3월 15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점심제공·‘각해일품’ 법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신청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교계 무료급식소 ‘노인행렬’ 2천

‘二本 한글화엄경’ 나왔다 6천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조성’과 ‘개금’ 및 ‘광명진언’ 사경불사 동참 안내

귀의 삼보 화유고 부처님의 가정에 건강과 福이 늘 상 증만하도록 부처님전에 참사모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 일이라는 -승으로 佛事に 임해 왔지만 賢福과 福이 없고 모든 신도님들의 급전적 부담이 되는것 같아 사절인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국난이 있을때 나 자신의 소원을 기원할때 부처님 혹은 탑전 또는 眞容을 사경하는 佛事를 봉행하여 업장소멸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의 기피와 우리의 부처님 조성불사 원력으로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더불어 IMF시대의 터널에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 조성 불사와 사경기도에 적극 同參하시어 卍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뜻있는 인연맺어 금생은 물론 卍世生 生 無量功德 지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경사 주저 절 안 함장



진언을 지송하는 법
眞容을 언제 어디서나 지니고 외출 수 있습니다. 관음에서뿐만 아니라 경이타닐 때나 누워 있을 때에도 외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 들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眞容을 지송하려면 날짜를 정하여 3일 7일 혹은 21일 또는 000일 을 정하여 정정하게 묵묵하고 웃을 자주 같이 읽고 향을 피우고 일심(-)정성으로 眞容을 지송해야 합니다.

동참하시는 방법
● 부처님 조성 및 개금불사 각자의 심신과 행력 또는 개인의 원력에 따라 자유로이 동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 사경기도 이는 나라에 어려운 일(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이 처했거나 개인의 업장소멸, 병고래차 사업성취, 수명증장, 기타 중생구제의 큰 원력을 세웠을 때 쓰시게 되어 우리 불경사는 수백 수천년전에 선조들께서 하신 법범대로 경명주사를 어떻게 구해 사대부들이 날마다 시간을(3일, 7일, 21일 혹은 000일)의뢰로 정하여 한차쓰고 한번 읽는(-字一拜) 방식으로 율해 동자날까지 세오시는 분 들에 한해 부처님 복장에 넣어 드립니다.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께 양식과 붓, 경명주사를 드리오니 친자나 먼 이웃에게도 -生에 한번 인연맺기 어려운 佛事에 좋은 功德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男女老少 누구나 卍인이 직접 쓰셔야 합니다.
● 사경기도 동참금: 20세 미만 아이는 1일 500원(동짓날까지 기준) 어른은 1일 1000원 이상 卍인의 卍심에 따라서 내시면 됩니다.

부처님 ‘조성’ ‘개금’ 및 ‘사경불사’에 관한 안내: 전화 (0346)571-0555~7번
온라인: 농협 580-02-000095 예금주: 대웅전 건립회
대한불교 조계종 천년교찰 불경사 대웅전 건립회